

하루를 시작하며



김문정 시인

오늘도 마스크를 씩니다. 오월도 어 느덧 하순. 꽃피고 잎 푸른 맑은 날 이 무색하지만 어쩔 수 없지요. 어느 날은 제가 만든 마카롱에도 마스크 를 그려 넣었습니다. 마스크 아래 도 드러져 보이는 캐릭터의 웃는 입이 귀엽고도 가엾습니다. 씩꿨더니 손 님들이 '너도 썼구나' 웃고, 벗겼더니 '시원해서 좋겠다' 웃으셨어요. 동병상련에 이심전심으로 웃습니다. 발신처도 다양한 공적 문자는 확 성기에 빨간불을 켜고 수시로 날아 듭니다. '모임, 행사, 여행 등 연기 또는 취소/생필품 구매나 병원 방문,

쓰고, 쓰고, 씩니다

출퇴근 외 외출 자제/유증상자 재택 근무/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다중 이용공간 사용 않기/퇴근 후 바로 귀가하기/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거리 유지/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주기적 환기, 소독/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마스크 착용, 대화자제' 등등. '나와 내 이웃을 지키는 착한 습 관'. 어찌 보면 단순 유치하지만 절 절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 활 속 거리두기'까지 그간의 문자들 을 내려 읽다보니 지난한 코로나 극복의 역사가 보입니다. 보내주신 정부재난지원금은 잘 쓰 고 있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현금카 드에 충전되었습니다. 기부도 좋지만 지금은 '경제전시상황'이라지요. 즐 겨 쓰기로 합니다. 통장 잔액에 보태 지지 않아 마치 비상금 봉투를 따로 여는 것 같습니다. 사용처에서 결제 하면 저절로 차감되어 잔액까지 문자

로 알려줍니다. 동네마트에서 생필품 을 샀고 자동차 뒷좌석의 손잡이를 고쳤고 피자도 시켜먹었고 지인의 옷 가게에서 블라우스도 한 벌 샀습니 다. 경제의 연결고리가 그러하네 내 소비가 가까운 이웃을 돕게 되는 당 연하고도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더욱, 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편의 점 고급아이스크림의 매출이 상승했 다니 슬며시 웃음이 납니다. 제 사업장도 자동으로 사용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드결제 때 '지원 금'이라는 꼬리표가 보이는지 궁금 해 하겠지만 업무에겐 주머니가 드러 나지 않습니다. 바빠 준비하고 빠 르게 업데이트되는 노고가 느껴져 함께 감탄했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지만 우리 모두 잘 견디고 있어 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찾아내는 끈질김, 드라이브스루와 비대면 검 사 같은 창의적인 노력이 '방역1등

사설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나아진게 뭐가

제주지역 대중교통은 여전히 길 길히 멀어 보입니다. 대중교통체 계가 바뀐지 2년 반이 넘었으나 해결 과제가 수두룩해서 그렇습니 다. 버스 환승에 소요되는 시간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길 정도로 적 짱게 걸리고 있습니다. 또 대중교 통의 접근성과 운행 횟수도 아직 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대 중교통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제주에서 평일 승객들이 버스를 갈아타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13.3분입니다. 강원도 (14.8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 째로 길었습니다. 전국 평균 (7.6분)과 비교하면 환승하는데 걸릴 시간이 5.7분 더 걸린 셈입니다. 특히 제주지역 버스 환승 소요 시간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오 히려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 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전인 2017년 도내 버스 환승 소요시간 은 평균 11.2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3.2분, 지난해 13.3분으로

2년새 8.7%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은 낙제점에 가까웠습니다. 도내 62개 법정동 중 '최소 수준의 버 스 접근성 기준과 운행 횟수 기 준'을 모두 충족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한 취약지역은 41곳, 둘다 충 족하지 못한 '사각지역'은 21곳 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2017년 8월 하순부터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 했습니다. 대중교통체계가 30년만 에 바뀌는 대수술입니다. 원희룡 도정이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야심차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한 후 과연 나아진게 무엇인지 와닿는게 없습 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조사대로라 면 이용객이 늘고 만족도가 조금 높아진 정도에 불과합니다. 연간 대중교통에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귀포문화광장 차질없는 추진에 총력을

서귀포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문화 광장 조성사업이 사업지내 토지 보상 협의 지연, 예산 미확보 등 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 초 이 사업은 동흥동에 131억원 의 예산을 투입해 2015-2019년 에 추진키로 했었습니다. 이후 시 민회관 철거 후 문화체육복합센 터 건립과 대규모 광장, 커뮤니티 카페 등으로 사업내용 변경과 관 련 제도 변경,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 히면서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서귀포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문화광장 조성기본계 획 수립용역을 완료한 이후 부지 내 소방서 이전 및 동흥119센터 이전, 임시주차장 마련 등의 세부 사업 추진실적도 거뒀지만 전체 적으로 지지부진 상태입니다. 사업지내 토지보상협의건의 경 우 올 5월 현재 총 8필지중 7필지 에 대해 완료했고, 나머지 1필지 에 대해선 협의를 진행중이나 언

제 이뤄지지 미지수인데다 토지매 입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서귀포시 관계자도 코로나19 등으로 예산확 보가 어렵지만 내년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내년에 착공해 연 차적 추진을 다짐하면서도 여러 상황상 사업기간 지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서귀포시 광장조성사업은 문화 예술의 도시 성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면서 기존 이종섭거리와 매일시장 등을 연 결하는 서귀포시 원도심의 문화 벨트로서도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에 차질없는 추진에 적극 나 서야 합니다. 여기에서 서귀포시 광장조성사업이 앞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광장의 '내용'을 휴식·여 가공간, 축제·공연을 위한 개방공 간, 역사·문화적 상징의 공간들 가운데 어떤 유형으로 특색있게 가꾸 나갈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고민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열린마당

특성화고와 실무수습



윤태민 제주지방기상청

내 고향은 경기도 이천이다. 이천하 면 떠오르는 것은 찰진 쌀과 먹음직 스러운 복숭아, 명품 도자기 등 여러 명물들이 있겠지만 하나 더 소개하 다면 그것은 바로 이천 세무고등학교이다. 이천 세무고는 상업 계열 특 성화 고등학교로 세무회계과와 세무 정보과로 나누어져 있다. 특성화 고 의 특징 중 하나는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학교장의 추천으로 지역인 재 국가직 9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제 도가 있다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대기과학, 우주 분야를 좋아했던 터라 원하는 부처를 지원할 때 기상청 일반행정 모집에 지원하게 되었고 제주지방기상청으로 발령이

났다. 출근 첫날은 웬지 가슴이 두근 거려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무 엇이 있을까?' 생각하니 긴장이 되었 다. 점차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기상 청은 단순 날씨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 예보, 기획, 정보통신, 기 상레이더 등 정말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TV 에서만 보던 날씨 업무가 간단해 보였 지만 사실 위에 있는 모든 일이 푼니 바퀴처럼 맞물려 힘들게 날씨 예보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현재 실무수습에서 배우는 6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 부단히 노력해서 기상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고 국민에 봉사하자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늘 마음에 되 새기며 한 인격체로 성장할 것이다. 끝으로 지역인재는 무궁무진한 잠재 력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고졸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부 분은 향후 자기계발을 통해서 더 커 다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다. 여러분도 한 번쯤 지역인재 시험 의 기회를 꼭 잡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민이 4·3특별법 단일개정안 만들자”

강창일 “성원 마음에 깊이” 맡겨져 될 일은 아니“라면서 “20대 국회의원 반연교사 삼아 치 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며 (가칭) ‘제주 4·3특별법 개정 제 주도민(안)’ 마련을 제안. 정 의원은 “유족과 도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일 이 우선”이라고 강조. 오은지기자 롯데면세점 제주점 임시휴업 ○...롯데면세점 제주점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다음달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 제주점은 전 임직원들의 염원을 모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제선 감소로 인한 해외관광객 감소 등 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 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6월 1 일부터 임시휴업하기로 웅단. 롯데면세점 제주점장은 “코로 나19는 면세점을 비롯해 항공·여 행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있다”면서 “영업재개시 제공지 드리겠다”고 언급. 고대모기자 정민구 4·3특위위원장 제안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0 대 국회에서 무산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단일개정안’ 마련 이 속도를 낼지 주목.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위 위 원장은 26일 “국회의원들에게만

말겨서 될 일은 아니“라면서 “20대 국회의원 반연교사 삼아 치 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며 (가칭) ‘제주 4·3특별법 개정 제 주도민(안)’ 마련을 제안. 정 의원은 “유족과 도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일 이 우선”이라고 강조. 오은지기자 롯데면세점 제주점 임시휴업 ○...롯데면세점 제주점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다음달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 제주점은 전 임직원들의 염원을 모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제선 감소로 인한 해외관광객 감소 등 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 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6월 1 일부터 임시휴업하기로 웅단. 롯데면세점 제주점장은 “코로 나19는 면세점을 비롯해 항공·여 행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있다”면서 “영업재개시 제공지 드리겠다”고 언급. 고대모기자

부 고
허인지(前 초등학교 교장·국가유공자) 부인, 허용혁·원혁 어머니 동래정씨 갑빈(향년 87세)께서 서귀 2020년 5월 24일 20시 56분 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5월 27일(수요일)
▶발인일시: 2020년 5월 28일(목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3분향실(2층)
▶장 지: 호근동 가족묘지(호근동 931-2)
남편 허인지, 아들 허용혁, 딸 허혜선, 손자 허준우, 손녀 허지원
김나연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남양홍공 성보(향년 85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 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아들 홍창규, 홍수명, 홍수봉, 홍수민
며느리 고정란, 고성숙, 부현
연락처 010-4855-6013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남편 남양홍공 민수(향년 5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 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부인 김수정, 딸 홍예은, 형 홍범석, 누나 홍선영, 홍선희
형수 이미숙, 매형 김용규, 강용훈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품 목 : 운석 1점
• 감정가 : 20억원
• 조 건 : 매매 또는 대물교환
연락처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연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